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11월 5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글을 읽고 글의 응집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2. 관용어 ‘가슴이 찡하다’, ‘발 벗고 나서다’에 대해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춘향전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7급 한자를 익히고 읽을 수 있다.
 5. 변화하는 조선 백성들의 삶에 관련된 글을 읽고 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중학교 생활국어 2-2(대교), 100대 민족문화 상징,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초등한자,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한국사

교시	수업 내용
1교시 9:30-10:15	족지시험 숙제 확인 및 숙제 내용 공부 -한자 답맞추기, 수원화성에 관한 읽기자료 소리내어 읽기
2교시 10:15-11:00	작문 분반 수업(단락 쓰기 이어서)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교과서 88~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을 읽으면서 글의 응집성에 대해 공부하기
4교시 12:00-12:40	역사수업(변화하는 조선 백성들의 삶) 관련 영상보기
숙제	1. 한자 문제 풀어오기 2. 관용어 읽고 공부해오기 3. 읽기자료(탈춤)읽어오기 4. 어휘 공부해오기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족지시험 봅니다.

(뒷면에 어휘) ↓↓↓



7급 제5회 기출 및 예상문제

1 다음 밑줄 친 漢字語(한자어)의 음(음 : 소리)을 쓰세요.

보기

漢字 → 한자

(1) 할아버지는 솜씨 좋은 木手입니다.

(2) 人口 조사를 하였습니다.

(3) 父子가 꼭 닮았습니다.

(4) 지금의 농촌은 일손이 많이 不足합니다.

(5) 그곳에 火力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6) 그 場面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7) 老人을 공경해야 합니다.

(8) 生命은 소중합니다.

(9) 한 男子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0) 열다섯 명의 少年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대화

요즘처럼

우리 골치 아픈
일은 모두 잊어버
리고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해요.



그래요,
아자! 아자!
파이팅!

지 영: 제니 씨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제 니: 한국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모두 지영 씨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지영 씨는 무슨 일이 기억에 남아요?

지 영: 저는 좋은 일보다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시
험에 떨어져서 아쉬웠던 일도 있었어요.

제 니: 합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엔 꼭 취직하게 될 테니까 힘내세요.

지 영: 고마워요. 자, 우리 골치 아픈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
해요.

제 니: 그래요. 아자! 아자! 파이팅!

※ 골치(가) 아프다: 일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다

활용예문

▶ 회사 일이 많아서 정말 골치가 아파요.

▶ 골치 아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한잔하러 갑시다.

▶ 가: 세탁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골치가 아파요.

나: 산 지 오래 되었으니까 이번에 새로 사는 게 어때요?

새 어휘와 문형

□ 기억

□ 덕분

□ 골치

□ 아프다

□ 입사 시험 □ 떨어지다

□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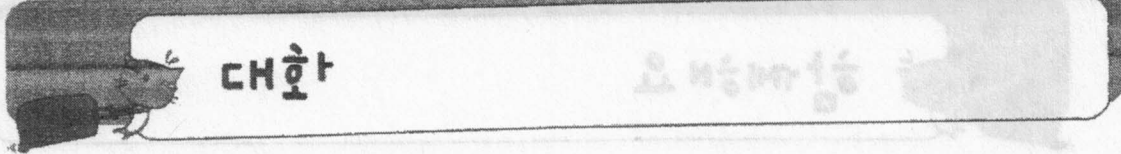
□ 합격하다

□ 맞이하다

□ 파이팅

□ 그만하다 □ 자꾸

□ 고장(이) 나다 □ -았/었던



새벽에 일어나
기 힘들지요?



네, 5분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제 니: 민수 씨, 아까 영화 보다가 졸았지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민 수: 아뇨, 며칠 전부터 새벽에 아버지하고 조깅을 시작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졸려요.

제 니: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건강에도 좋고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민 수: 그건 그렇지만 새벽마다 5분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아침, 제니 씨도 같이 조깅하는 게 어때요?

제 니: 미안해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미인은 잠꾸러기잖아요. 호호호.

* 굴뚝같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활용예문

- ▶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공부가 끝날 때까지 참기로 마음먹었다.
- ▶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 ▶ 가: 제가 만든 케이크 좀 드셔 보세요.
- 나: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새 어휘와 문형

- ☐ 졸다 ☐ 새벽 ☐ 조깅 ☐ 졸리다 ☐ 굴뚝 ☐ 같다 ☐ 미인
☐ 잠꾸러기 ☐ 참다 ☐ 사과하다 ☐ 다이어트 ☐ -다가

13. 골치(가) 아프다 14. 굴뚝갈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골치가 아프다

골칫덩어리

굴뚝갈다

1 가: 이번 휴가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어때요?

나: 가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2 가: 요즘 신문에는 _____기사가 너무 많아요.

나: 맞아요.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3 가: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네요.

나: 저 개는 우리 동네 _____지만 집을 잘 지켜요.

4 가: 연말에 일이 많아서 _____.

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 가: 오늘도 부장님께 혼났어요?

나: 네,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탈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했을까?

탈춤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한 탈을 쓴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탈춤을 본 적이 있지요? 탈춤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거리게 돼요.

탈춤은 아주 먼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사냥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빌거나 풍년을 기원했대요. 또 가뭄이나 홍수를 이겨 내고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탈을 쓰고 탈춤을 추기도 했어요. 이처럼 탈춤은 원래 종교 의식의 일부였

지요.

그러던 것이 고려 시대부터 차차 놀이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신명나는 놀이가 됐지요. 힘 없는 백성들은 탈춤을 추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거나, 양반의 행동을 과장되게 흉내 내어 서민들에



<읽기자료> 춘향전, 변화하는 조선 백성들의 삶

1. <춘향전>의 두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2.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3. 남자 주인공은 ()가 되어 춘향이를 구해냅니다.
4. 조선 후기에는 농사법이 발달하여 2배에 가까운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어떤 농사법이었나요? 두 가지를 쓰세요.
5. 청나라에 보내기 위해 ()을 캐내는 광산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어요.
6. 농촌에서 살 수 없게 된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장사를 하었는데, 이들을 육의전 상인들과 구분지어 ()이라고 했어요.
7. 지방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라고 불렀어요.

<어휘>

* 문장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하향 조정, 대명사, 비탄, 독자 투고문, 진출, 조공, 위상, 황폐한, 광산, 호소

1. 요즘 어린이 ()이 심각하다고들 한다.
2. 학교 신문에 그의 ()가 실렸다.
3. 여성의 사회 ()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4. 환경 보호 단체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를 표시했다.
5. 김치와 불고기는 한국 음식의 ()가 되었다.
6. 영업부는 상반기 판매 목표량을 5퍼센트 정도 ()했다.
7. 올림픽의 개최는 국가의 ()을 한층 더 높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8. 이곳은 한때 석탄을 캐던 ()이었는데 지금은 폐광되었다.
9. 지금 농촌에는 () 땅과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10. 아이만은 살려 달라는 어머니의 ()를 그들은 무참히 짓밟았다.
11. 조선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했다.

<5. 영조와 조선의 발전>

1. 다시 일어서는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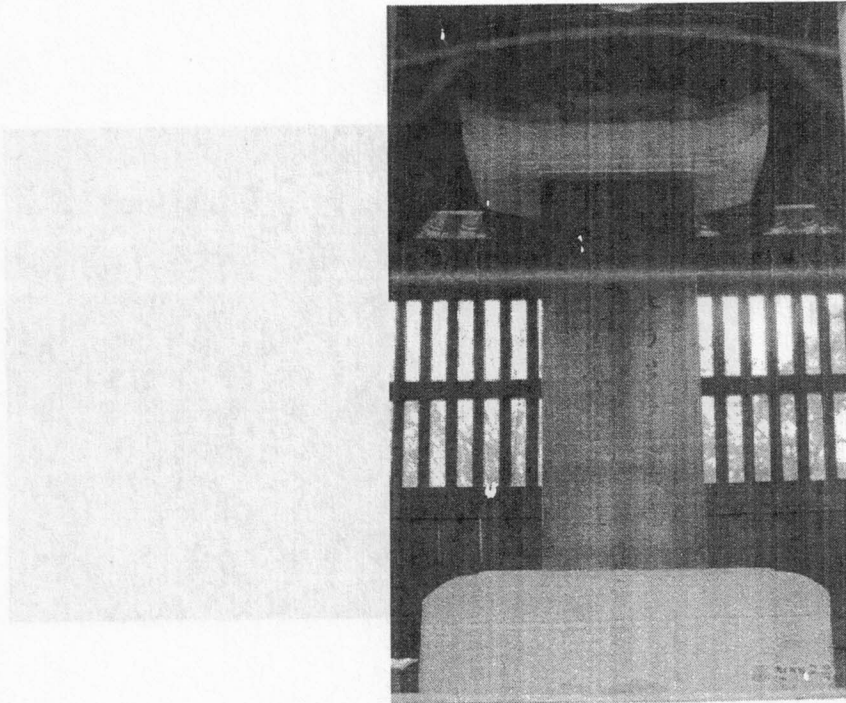
1742년 성균관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세워졌어요. 성균관의 학생들은 비 앞에서 웅성거렸어요.

“전하께서 탕평책(蕩平策)¹⁾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글을 쓰셨군.”

“나라가 잘 되려면 붕당(朋黨)²⁾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

영조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붕당 간의 치열한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붕당 간 치열한 경쟁을 없애는 탕평책을 강하게 펼쳤어요.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 것만 보아도 영조의 뜻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지요.

한편, 영조를 따르는 뛰어난 신하들과 영조의 강력한 뜻이 어우러져 조선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세종 대왕 이후로 가장 빛나는 문화를 이룩하게 되지요.



탕평비영조는 탕평비를 세워 붕당 정치의 잘못을 막으려는 강한 뜻을 보였다.

박문수가 경상도 지방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자 박문수는 마을의 집을 찾아가 머물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어요.

“아픈 아이가 있어 안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 늙기에도 방이 좁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차갑게 박문수를 돌려보냈어요.

“거참, 이상하군. 마을 인심이 어찌 이리 야박할까⁴⁾?”

할 수 없이 주막을 찾은 박문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상할 게 뭐 있소. 나라에서 백성을 구하라고 내린 곡식이 벼슬아치⁵⁾들 배불리는 데 쓰이고 있으니 그렇지요.”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마을 사람들⁶⁾이 박문수를 보며 오히려 나무라듯 말했어요. 순간 박문수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 나라에서는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 제도를 펼쳤어요. 그런데 벼슬아치들이 가을에 받은 곡식을 가로채고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게 분명했어요.

박문수가 그 날부터 여러 마을을 돌며 사정을 살펴보니 자신의 짐작이 맞았어요. 그는 당장 잘못을 저지른 경상도 지방의 벼슬아치들을 꾸짖고 벼슬을 빼앗았어요. 그 뒤 박문수는 암행어사 일을 마치고 경상도 관찰사⁶⁾가 되었어요.

3. 사도 세자의 죽음

어진 신하들과 함께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려 조선의 발전을 이끈 영조에게도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인 세자를 자기 손으로 죽게 한 것이었어요.

영조는 몸이 좋지 않아 열네 살 된 세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물론 중요한 일은 영조가 해결했지요. 그런데 영조는 세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영조는 세자에게 호통을 쳤고 세자는 점점 주눅²⁾이 들었어요. 여러 무리로 나뉜 신하들과 영조의 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세자는 영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며칠 여행을 떠나고 말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나랏일을 버리고 놀러 가다니 정신이 있는 것이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영조는 세자를 꾸짖다 못해 자결(自決)⁸⁾을 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아바마마,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